

# Reflection 9

ICIS Newsletter, Kansai University



## Contents

아마쿠사 필드워크 2011 활동보고 .....	2
국제심포지엄 '주변과 중심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동아시아의 『越·韓·琉』' .....	4
동아시아문화교섭학회 제3회 대회 .....	6
RA활동보고 / ASCJ·WHA참가 보고 .....	7
제5회 국제심포지엄 .....	8
컬럼 / 경계를 넘는 신들 .....	9
활동보고.....	10
기요 원고 모집 안내.....	11

# ICIS

일본 문부과학성 글로벌 COE  
간사이대학 문화교섭학 교육연구거점

Institute for Cultural Interaction Studies, Kansai University





## ICIS 주변 프로젝트 아마쿠사 필드워크 2011 활동보고

### 아라타케 켄이치로(荒武 賢一朗, 문화교섭학교육연구거점 조교)

간사이대학 문화교섭학교육연구거점(ICIS)에서는 작년도에 이어 2011년 7월25일-8월1일에 걸쳐 쿠마모토(熊本)현 아마쿠사 제도(諸島)에 대한 종합 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 개요

이 프로젝트는 2년에 걸쳐 교원·연구원·대학원생이 함께 참여하는 아마쿠사 제도의 종합조사이다. 2010년도 조사에 대한 개요는 뉴스레터 7호에서 소개된 바 있으며 그 성과의 일부는 『周縁の文化交渉学シリーズ 2 天草諸島の文化交渉学研究』(2011. 3) 라는 보고서로 공개되어 있다.

이번 조사는 교원·연구원 5명, 대학원생 13명으로 실시되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5개 조사반(지리·문학·취락·교류·생활)을 구성하였다. 또 대학원생들은 다양한 연구방법을 배우기 위해 2,3개 조사반에 소속,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는 반 별로 진행되었지만 저녁에는 조사된 데이터를 정리하고 각각의 성과를 공유하며 멤버들의 의사소통을 꾀하는 전체 미팅을 가졌다.

#### 조사지역의 특성

아마쿠사 제도는 이른바 “헤이세이(平成)의 대함병(행정지역의 통폐합)”을 통해 지자체가 2시(天草市·上天草市)와 1초(荅北町)로 되었다. 아마쿠사를 찾아온 사람들은 모두 이 지역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느낀다. 한 예로 시청 소재지인 혼도(本渡)에서 남부의 우시부카(牛深)까지 갈 경우, 자동차로 1시간이나 걸린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을마다 말이나 축제(제사), 요리가 각각 다르다고 한다. 작년 조사에서는 아마쿠사 내에서의 지역성, 각 마을들의 개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올해는 가능한 한 많은 지역을 조사하고자 계획을 세웠다.

#### ①우시부카 조사

우시부카는 이번 조사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인원이 동원된 지역이다. 우시부카는 항구 마을로서 아마쿠사에서는 어업이라 하면 우시부카를 떠올린다고 한다. 현지

사람들의 협조를 받으면서 어업 지구인 마우라(真浦)와 가세우라(加世浦), 그리고 우시부카 하치만구(八幡宮, 신사) 소장 고문서를 조사하였다. 마우라와 가세우라는 온 동네가 “세도와(せどわ)”라는 폭 1미터도 되지 않은 비좁은 골목으로 열기설기 엮여져 있으며 빼곡한 집들로 마치 외부 사람들이 들어가면 길을 잃을 것만 같다.



가세우라 지구의 ‘세도와’

신사에서는 귀중한 고문서를 열람하였다. 이들은 종교적 가치뿐만 아니라 지역 형성사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또한 신사의 주인인 다시로(田代 壽興)씨의 알기 쉬운 해설로 우시부카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 ②지역문화의 계승

문학반에서는 ‘향토사’와 ‘지역신문’을 조사하였다. 우선 향토 연구자로서 『九州キリシタン新風土記』 등 많은 저작을 남긴 하마나 시마쓰(濱名 志松)를 기린 고소쿠노 쿠쓰(五足の靴) 문학자료관을 찾았다. 관장님(하마나 시마쓰의 아들)의 협조를 얻어 아직 정리되지 않은 문서를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마쿠사에는 공립의 박물관·자료관도 많지만 이와 같은 사립 문화시설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 아마쿠사시립 아마쿠사 아카이브에서 지역 신문, 마이크로필름을 조사(열람, 사진 촬영)하였다. 현지에서 정보·문화의 제공과 진흥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지역신문을 분석하는 일은 지역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다.

### ③자료를 이어가다

교류반에서는 작년에 이어 시립 혼도 역사민속 자료관 조상 이시모토(石本) 씨 자료 중 미술품을 조사하였다. 이시모토가는 에도시대 후기 아마쿠사에서 손꼽히는 상인 집안으로, 나가사키, 오사카 등과 교역하면서 억만의 부를 이루었다. 문서는 규슈대학에 기증되어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우리가 조사한 미술품을 분석하고 고문서의 연구성과와 대조시켜 보면,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시모토씨 자료

### 주변부를 아우른 아마쿠사 조사의 매력

아마쿠사 카미시마(天草上島)에서 야쓰시로카이(八代海)에 면한 지역은 현재 아마쿠사 오교(五橋)로 인해 규슈 쪽과 연결되기 이전부터 쿠마모토의 영향을 받아 왔다. 또 지역에 따라서는 바다 건너편인 나가사키, 카고시마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곳도 있다.

우시부카, 고쇼노우라지마(御所浦島), 다나조코(棚底), 고료(御領), 유시마(湯島)에 대한 조사에서는 각 지역의 특색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마쿠사에서는 생선요리가 주를 이루는데, 가는 곳마다 다양한 종류의 생선이 밥상에 올라간다. 이와 같은 독자적인 ‘지역의 열굴’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조사의 성과이다. 한편 아마쿠사 제도를 둘러싼 근접지역까지 포함시킨 분석도 필요한데, 이번 조사에서는 카고시마의 나가시마(出水郡長島町), 쿠마모토현 우키(宇城)시를 찾아갔다.

나가시마는 우시부카에서 페리로 30분 거리에 있는 섬으로 지금은 쿠로노세토(黒之瀬戸)대교로 아쿠네(阿久根)시와 연결되어 있다. 이 섬은 지리적으로 보면 아마쿠사 제도에 속하지만 전국시대 사쓰마(薩摩)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 카고시마현에 소속되어 있다. 이번 조사에서 아마쿠사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키시에서는 아마쿠사 코앞에 있는 미스미(三角)지구, 예전에 항구로 번성했던 마쓰아이(松合)지구를 견학하였다. 미스미 항은 근대에 지역 터미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 지역이며 현재 세계유산 등재운동이 추진

되고 있다. 메이지(明治)시대 거리를 떠올리게 하는 동네 풍경은 이 지역 문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 지역 연계, 그리고 문화교섭학의 전개

이번 조사는 고향을 사랑하는 현지 사람들의 협력에 힘입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현지에서는 사람들이 역사·문화 조사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여건을 갖추기 어려운 실정이다. ICIS는 현지조사 경험을 통한 대학원생 양성과 향후 연구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ICIS와 조사지역의 만남은 큰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조사의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아마쿠사와 ICIS는 조사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연계를 심화시키고 있다. 작년에 이어 조사 기간 중 “간사이대학 지역교류 강연회”를 개최하여 현지 사람들과 교류하였다. 올해는 현지 대표로서 쓰루타 후미요시(鶴田 文史, 아마쿠사 사담회 대표) 선생과 히라타 토요히로(平



지역교류 강연회

田 豊弘, 아마쿠사시 교육위원회) 선생이 강연을 맡아주었고, ICIS에서는 야부타 유타카(藪田 貫) 교수, 그리고 대학원생인 왕 하이(王海) 씨가 조사 성과를 발표하였다. 일반인도 약 50명이 참여하는 등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처럼 많은 성과를 거둔 종합연구는 이제 정리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다. 이번에도 참여 멤버를 중심으로 한 논문집이 간행될 예정이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각 멤버들이 앞으로 어떻게 연구를 추진해 갈 것인지 기대된다. 개인적으로 조사에서 얻은 것은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가 참여하는 조사의 중요성, 그리고 새로운 연구방법의 모색과 창조였다. 이것이 문화교섭학의 미래를 여는 소중한 재산이 되었음을 말할 것도 없다.



## ICIS 국제 심포지엄

# ‘주변과 중심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동아시아의 『越·韓·琉』 —역사학·고고학 연구에서의 시각’

2011년 10월 1·2일, 문화교섭학교육연구거점 (ICIS) 주최 국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ICIS에서 제시한 ‘주변의 문화교섭’에서는 중국을 둘러싼 지역을 ‘주변’으로 규정하고, 그 ‘주변’에서 바라본 중국 연구가 주를 이룬다. 이는 간사이대학에서 축적해 온 중국학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중국의 지리적·문화적인 중심성



다오 떠민 리더의 개회사

에 주목한 것으로, 그 틀과 연구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중국학 연구의 심화와 문제의식에 근거하는 한 그 답론은 항상 “주변의 목소리가 없는 동아시아론”에 빠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ICIS 연구원들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베트남·한국·오키나와 현지에서 각각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해 왔다(각각의 개요는 뉴스레터 7호에 수록). 본 심포지엄은 이를 총괄하는 것으로, 주변과 중심, 중국문화와의 관계, 권력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전근대 월(베트남)·한(한국·조선)·류(琉球, 오키나와)의 역사와 문화를 비교함으로써 지역 연구의 다이너미즘을 부각시켜 동아시아론에 접목시키고자 기획되었다. 프로그램은 3부(정치, 외교, 물질문화) 및 종합토론으로 구성되었으며 소장 연구자를 중심으로 역사학·고고학계의 저명한 학자가 참여하였다. 발표자와 제목은 다음과 같다.

### 제1부 정치

- 모모키 시로 (桃木 至朗, 오사카대학 교수)  
중세 대월(大越)의 지방지배—唐宋 변혁기 「小帝國」 비교사를 향한 문제제기
- 시노하라 히로카타 (篠原 啓方, ICIS 특별연구원)  
고대한국의 정치체제와 국제인식—고구려·신라를 중심으로
- 도미야마 가즈유키 (豊見山 和行, 류큐대학 교수)  
근세 류큐의 정치구조에 대하여—言上寫·僉議·規模帳 등을 중심으로

### 제2부 외교

- 시미즈 타로우 (清水 太郎, 돗토리현립 공문서관 전문원)  
베트남 사절과 조선 사절의 중국에서의 해후(邂逅) (6)—19세기를 중심으로
- 정다함 (鄭多函, 한양대학교 HK교수)

“소중화(小中華)”의 창출: 15세기 조선의 여진족과 대마도에 대한 “경차관(敬差官)” 파견을 중심으로

- 오카모토 히로미치 (岡本 弘道, 간사이대학 동서학술연구소 연구원, 전 ICIS-PD)  
근세 류큐의 국제적 위치와 대일·대청외교

### 제3부 물질문화

- 니시무라 마사나리 (西村 昌也, 가나자와대학 국제문화자원학연구소 센터 객원연구원, 전 ICIS 조교)  
베트남 형성사에서 “남(南)”으로부터의 시선: 고고학·고대학(古代學)을 통해 본 중부 베트남(참파)과 북부남역(北部南域, 타이호아·게안 지방)의 역할
- 양정석 (梁正錫, 수원대학교 교수)  
고대 동아시아에서의 궁전의 계보—고구려와 발해를 중심으로
- 이시이 료타 (石井 龍太, 일본 학술진흥회 특별연구원 PD)  
기와와 류큐—왕권, 제도, 사상, 교섭

제1부에서는 우선 모모키씨가 각 지역의 “동아시아사” 연구의 문제점과 월·한·일(및 류큐)의 비교연구의 중요성을 지적한 후 대월(大越, 이조[李朝], 1009-1226)의 지방지배를 개관하면서 특히 고려와의 비교사적 시각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시노하라는 4세기~5세



제1부 토론

기초의 고구려의 지배이데올로기와 6세기 신라 법제도의 논의를 통해 고대 한국에서의 한화(漢化)와 국제질서의 다양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도미야마씨는 “言上寫”(하달문서)를 통해 근세 류큐(1609-1879)의 내정구조를 논하고 지방과 이도(離島)에 대한 일률적인 통치 방침이 18세기 초부터 뚜렷해진다고 하였다. 토론자인 이성시(와세다대학 교수)씨는 3개 발표가 정치와 문명의 중심인 중국과 대비되는 지역 중심으로서의 월한류의 양상을 잘 그려냈다고 평가하는 한편, 제도사적 측면에서

몇몇 문제제기, 비판, 전망에 대해 지적하였다.

제2부에서는 시미즈씨가 19세기를 중심으로 한 베트남·조선 사절의 교류의 변천과 의의에 대해, 새로운 자료를 소개하면서 논하였다. 정다함씨는 여진과 대마도에 파견된 경차관에서 보이는 조선의 “소중화”가 기존의 사대(事大)나 교린(交隣)이라는 틀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오카모토씨는 근세 류큐에서 명청과의 조공·책봉관계, 사쓰마·도쿠가와 막부와와의 종속관계는 류큐에게 외교적 제약이자 류큐의 존재의의를 보장해주는 장치이기도 했다고 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보이는 류큐의 자율성을 검토하였다. 이에 대해 후마 스스무(夫馬進, 교토대학 교수) 씨는 사료의 저본(底本), 용어, 시기구분, 연구사 등에 대한 상세하고 예리한 문제제기를 하였으며 예정시간을 1시간 초과하는 등 뜨거운 열기 속에서 토론이 이루어졌다.



제2부 토론

둘째날에 이루어진 제3부 “물질문화”에서는 니시무라씨가 동고(銅鼓)와 도자기와 같은 베트남·중국의 물질문화 양상을 통해, 베트남 형성사에서 베트남 북부남역에 있던 킵족의 역할을 거시적으로 논하였다. 양정석씨는 고구려와 발해 궁전의 건축구조와 배치양식에서 한~수당에서 수시로 들어오는 요소와 고구려의 전통적인 요소라는 두 가지 계보가 존재했음을 지적하였다. 이시이씨는 류큐 제도(諸島)의 기와가 한반도, 일본열도, 중국대륙부의 기와문화



양정석씨 (제3부)

와의 교섭을 통해 성립·발전해왔으며 류큐 왕부(王府)에서 기와 생산과 사용을 독점함으로써 소유자의 사회적·경제적 우위를 나타내는 장식재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음을 논하였다. 토론자인 니시타니 타다시(西谷正, 규슈역사자료관 관장) 씨는 풍부한 지식으로써 최근 동아시아의 고고학적 성과부터 의장(意匠)과 구조를 해석할 때의 문제점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제언을 하였다.



무라이 쇼스케씨

종합토론에서는 무라이 쇼스케(村井章介, 동경대학 교수) 씨가 발표 전체에 대한 문제제기로서 1) 중국적 요소에 대한 객관화, 그리고 이와 다른 요소의 규정방법 2) 독자성이라는 개념의 위험성 3) 문화권이라는 공간 설정의 어려움 등을 지적하였다. 발표자들은 시대와 지역 등 연구대상이 서로 다르지만, 토론자들의 적절한 지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공통된 문제의식을 자신의 관심대상과 연결시켜 각각의 소감과 전망을 말하였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의미 있고 자극적인 심포지엄이었다. 그리고 많은 과제가 산적돼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심포지엄의 목적이 “주변”의 주체성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비추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본 심포지엄의 지향점은 이와 같은 논의를 거쳐 새로운 동아시아상(像)을 모색하는 데 있으며 주체성에 대한 논의는 어디까지나 과정에 불과하다. 이것이 일회성의 학술회의나 개인연구만으로 그치는 내용이 아닌 만큼, 이와 같은 시도가 앞으로도 필요하며 또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야 함을 실감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심포지엄의 취지를 이해하고 개최를 흔쾌히 허락해 준 ICIS 교원들과 관계자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시노하라 히로카타 (篠原 啓方, COE 특별연구원)



기념촬영



## 동아시아문화교섭학회 제 3 회 대회

# 신해혁명 100주년기념 국제심포지엄 “신해혁명과 아시아”

2011년 5월 7·8일, 동아시아문화교섭학회 (Society for Cultural Interaction in East Asia) 와 화중사범대학 중국근대사연구소가 공동주최한 국제심포지엄 ‘신해혁명과 아시아’ 가 중국·우한 (武漢) 화중사범대학에서 개최되었다.

중국과 일본, 한국, 미국, 캐나다, 홍콩, 대만 등에서 60여명의 학자가 참석하고 연구를 발표하였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신해혁명과 아시아이다. 개최식에서는 저명한 역사학자이자 화중사범대학 전 학장인 장



토론 장면 1

카이위안 (章開沅) 선생이 “신해혁명과 아시아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기조강연을 하였고, 캘리포니아주립대학 샌디에이고 캠퍼스의 Joseph W. Esherick 교수가 “Reconsidering the 1911 Revolution” 라는 제목으로 강연하였다.

이틀간에 걸친 심포지엄은 10 가지 라운드테이블에서 토론이 이루어졌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제적 시각에서 본 신해혁명
2. 신해혁명의 역사유산과 현실적 의의
3. 신해혁명 이후 동아시아 각국의 상호인식
4. 혁명시대의 신개념

5. 서양인들에 의한 아시아 연구와 중국어 연구
6. 한국의 동아시아문화 연구
7. 한국의 동아시아문화 연구
8. 중국출토문헌연구
9. 중일 양국의 상호인식과 문화의 관계
10.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와 중국문화

동아시아문화교섭학회 2011년도 회장으로 화중사범대학학장이자 저명한 근대사연구자인 마 민 (馬敏) 교수가 선출되었다.



토론 장면 2

동아시아문화교섭학회 (Society for Cultural Interaction in East Asia) 는 일본 간사이대학 G-COE문화교섭학교육연구거점 (ICIS) 을 중심으로 설립된 국제학회로서 세계 320여명의 학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선 귀웨이 (沈國威, ICIS 교수)



기념촬영



## RA 활동보고

### ASCJ 참가 보고 셴 웨이웨이 (沈薇薇, 문화교섭학교육연구거점 RA)

2011년 6월 ASCJ 2011이 국제기독교대학 (ICU) 에서 개최되었다. ASCJ (Asian Studies Conference Japan) 란 아시아의 인문학연구의 종합적인 학회로서 영어를 사용언어로 한다. ICIS에서는 5년째 ASCJ에 참가하고 있다. 매년 ICIS 내부에서 참여 회망자를 모집하고 각자가 “문화교섭” 이라는 주제 아래 전공이 다른 젊은 연구자들과 공통점을 찾으면서 연구 과제를 선정, 패널을 구성한다. 심사를 통과하면 몇 달 전부터 발표 준비를 위한 미팅을 여러 번 거치면서 연구를 심화시켜간다.

ICIS 멤버로서 ASCJ에서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지난번의 경험 때문에 이번에는 나름대로 여유를 가지고 발표할 생각이었지만 예상 밖의 사건을 여러 번 겪은 여행이 되었다.

우선 당일, 오사카 우메다로 가는 특급 열차가 고장이 난 것이다. ICIS 참가자들은 모두 다른 교통수단을 사용하여 무사히 신오사카까지 가서 신칸센을 탈 수 있었다 (교훈 1 : 열차시간을 잘 지키는 일본에서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10~20분 일찍 출발하는 것이 좋다). 나는 오후 패널에서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파워포인트

가 잘 작동되지 않아 문자와 도판의 일부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았다 (발표회장의 애플사 PC와 내 PPT의 궁합이 안 맞았던 모양이다). 다행히 20부 정도 준비해 놓은 발표문을 통해 무사히 발표를 마칠 수 있었다 (교훈 2 : PPT는 PDF로 백업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교훈 3 : 발표문은 반드시 준비할 것). 발표 후 방청석에서 보내준 박수가 내게는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아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해프닝이 자극제로 작용했는지 지난번보다 즐길 수 있었다. 일본 근대사에 대해 모국어가 아닌 영어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리고 약 반년에 걸친 준비과정도 만만치 않았다. 그렇지만 많은 선생님의 도움으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리에 발표를 마칠 수 있었다. ‘자신이 없는 것은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 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 맞는 말이다. 일이란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미리 준비를 해 두면 과정과 결과에 대한 비전이 명확해지며 예상 밖의 일이 생기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자신감” 이 아닐까.

### WHA 참가 보고 이나가키 토모에 (稲垣 智恵, 문화교섭학교육연구거점 RA)

2011년 7월 7일-10일까지 World History Association (세계역사학회) 가 주최한 The 2011 World History Association Conference가 중국 북경의 수도사범대학에서 개최되었다. 올해 20주년을 맞이하는 본 학회는 이번에는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하였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개최지가 북경인 관계로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였으며 일본인은 많지 않았다. 발표는 영어를 사용하며 3-4 명으로 구성된 패널토론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ICIS에서 참가한 사람들은 8일과 9일에 발표하였다. 나는 동료인 저우 슈왕슈왕 (鄒 雙雙), 한 위진 (韓 一瑾) 씨와 함께 7월 9일 “Sino-Japanese Language Synergies and Modern Chinese Identity: Impact of Translations, Neologisms, and Poetics from Periphery” 라는 패널에서 발표하였다. 사회자는 제닌 히튼 (Jenine Heaton) 선생이었고 코멘트는 히튼 선생과 저우 웨이홍 (周 維宏) 선생이 맡아 주셨다.

내 발표의 제목은 “Translation and the Introduction

of Modern Thought to China: The Role of Lu Xun” 로서 루쉰 (魯迅) 의 번역문을 통해 근대 중국어의 변화를 논한 것이다. 주제는 넓은 의미로 어학사에 포함되지만, 사실 내 전공이 역사가 아니라 중국어학, 그것도 문법이기 때문에 학회 발표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영어로 된 프레젠테이션은 고사하고 영어로 대화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나에게 정말 제로에서의 출발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다오 떠민 리더와 히튼 선생의 지도 덕분에 어느 정도 모양새를 갖추 수 있었다. 특히 히튼 선생은 영어 수업을 비롯하여 원고 교정과 발음지도까지 많은 도움을 주셨다.

이번 학회에서는 특히 다양한 경력을 가진 중국사 연구자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 보통 어학, 그것도 일·중 2개국어를 사용하는 연구자들의 학회에 참석하는 나에게 “서양 (사람)” 을 통한 아시아인식은 신선한 것이었다. 영어 (또는 기타 외국어) 를 사용하면 더욱 넓은 세계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스레 느끼게 되었다.

## 제 5 회 국제심포지엄

2011년 11월 11일 · 12일 간사이대학 문화교섭학교육연구거점 (ICIS) 의 주최로 제 5회 국제심포지엄 “동아시아문화교섭학의 새로운 전망” 이 개최되었다.

우선 오전에 시바 요시노부 (斯波 義信, 재단법인 동양문고문고장 · 오사카대학 명예교수) 선생과 왕 샤오치우 (王 曉秋, 베이징대학 역사계 중외관계사연구소장) 선생에 대한 간사이대학 명예박사학위 수여식이 열렸다. 다음으로 다오 떠민 (陶 德民, 간사이대학 ICIS 리더) 선생이 지난 5년간의 ICIS 활동에 대해 보고하였고 시바 선생이 “Japanese Study into the History of Maritime East Asia” 라는 기조강연을, 조슈아 포겔 (Joshua Fogel, 요크대학) 선생이 “The Cold War and China in the United States” 라는 기념강연을 하였다. 오후부터는 이틀에 걸쳐 3 패널에서 연구성과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연구자와 발표제목은 다음과 같다.

### 패널 1 유교의 종교성과 서원 네트워크에 대하여

- 황 진썩 (黃 進興, 중앙연구원 역사언어연구소장)  
「유학연구에 대한 재고」
- 아즈마 유지 (吾妻 重二, 간사이대학 ICIS · 대학원문학연구과장 · 동아시아문화연구과장)  
「문화교섭학과 동아시아의 서원」
- 쉬 싱칭 (徐 興慶,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외국인연구원 · 국립타이완대학 일본어문학연구 교수)  
「동아시아 유교, 종교관의 전환과 인식-은원 (隱元), 독립 (獨立), 심월 (心越) 선사와 주순수 (朱舜水) 의 사례를 통해」
- 니카이도 요시히로 (二階堂 善弘, 간사이대학 ICIS 서브리더)  
「민간 사묘 (寺廟) 의 공자 제사에 대한 현황」  
코멘트 : 고지마 쓰요시 (小島 毅, 동경대학대학원 인문사회계연구과)

### 패널 2 동아시아 “지중해” 연구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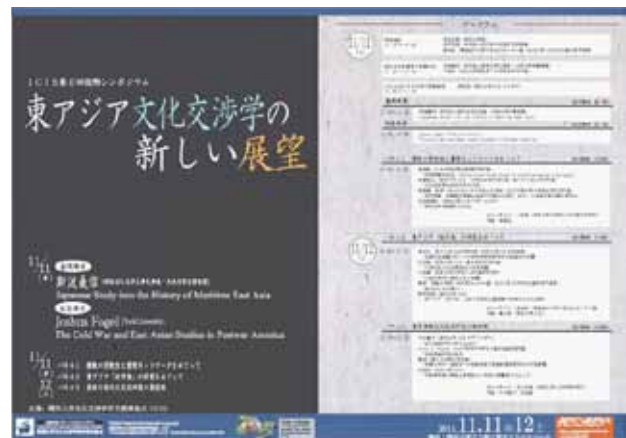
- 거 자오광 (葛 兆光, 푸단대학 문사연구원장 · 간사이대학 COE 객원교수)  
「오삼계 (吳三桂) 와 강백약 (姜伯約) 은 과연 같은가? —청나라 이후 조선 군신의 오삼계에 대한 평가」
- 마쓰우라 아키라 (松浦 章, 간사이대학 ICIS · 동서학술연구소장)

「중국 범선에 의한 표류민의 본국 귀환」

- 고지마 쓰요시 (小島 毅, 동경대학 대학원 인문사회계연구과)  
「왕안석학파의 경학과 영향」
- 최 관 (崔 官,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장 · SCIEA 제 4차 대회 주최예정자)  
「정 성공 (鄭成功) 에서 와토 나이 (和籐内) 로」
- 노마 하루오 (野間 晴雄, 간사이대학 ICIS)  
「동아시아 “지중해” 의 역사생태기반의 지역성과 문화교섭」  
코멘트 : 정 페이카이 (鄭 培凱, 홍콩성시대학 중국문화센터장)

### 패널 3 동서언어문화교류연구의 최전선

- 우치다 케이치 (内田 慶市, 간사이대학 ICIS 서브리더)  
「역외 (域外) 한어연구의 새로운 지평」
- 이리나 F. 포포바 (Irina F. Popova) (러시아과학아카데미 동양문헌연구소장)  
「러시아 한어연구의 현황」
- 장 칭 (章 淸, 푸단대학 역사학부장)  
「신문 문체의 시 (是) 와 비 (非) —청말 중국 신한어 수용의 왜곡과 영향에 대한 약론」
- 셴 귀웨이 (沈 國威, 간사이대학 ICIS)  
「신해혁명기의 신어와 신개념-일본어의 영향을 중심으로」  
토론 : 다카다 토키오 (高田 時雄, 교토대학 인문과학연구소)



히노 요시히로 (永野 善寛, COE-PD)



## 경계를 넘는 신들

미야지마 준코 (宮嶋 純子, 문화교섭학교육연구거점 · PD)

“칠복신”은 복을 내려주는 7명의 신으로 오래전부터 일본에서 신앙의 대상으로 전해져왔다. 일본에서는 정월이면 칠복신을 모시는 신사에 참배하고 초복(招福)을 기원하는 “칠복신 순례(七福神めぐり)”가 전국 각지에서 활발하게 이뤄진다.

우리 가족은 매년 성인(成人)의 날이면 교토 센뉴지(京都 泉涌寺)에서 행해지는 “칠복신 순례”에 참가한다. 이 행사에서는 칠복신을 순례하며 각각의 신들과 연관된(緣起物)을 모아 그것들을 조릿대(福笹)에 달고 집에 가져온다. 그리고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초래하는(攘災招福) 상징물로서 이를 1년 동안 집 현관 앞에 매달아 놓는 것이다.



사진 1

이 칠복신들이 모두 연원을 달리하는 다국적·다종교 집단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알 것이다. 칠복신을 구성하는 7명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일본 고유의 신인 에비스(惠比壽), 힌두교의 신으로서 불교를 거쳐 전해진 다문천(多聞天)과 벤자이텐(辨財天), 또 인도의 신과 일본의 오오쿠니누시(大國主命)가 융합되어 등장한 다이코쿠텐(大黒天), 중국 도교신인 후쿠로쿠주(福祿壽)와 슈로오진(壽老人), 중국 당나라 때 전설적 승려였던 호테이(布袋)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이 사이좋게 한 척의 보물선을 타고 오면 큰 행복을 날라다 줄 것 같기도 하다.

물론 이국(異國)의 신을 모시는 사례는 일본의 칠복신만이 아니다. 예를 들어, 관제묘 등은 화교들이 사는 곳이라면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으며 지금은 상업의 신으로서 화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모으고 있다. 일본의 경우 관제묘가 차이나타운의 관광명소로도 유명하다.

관제가 2세기 후반~3세기에 실제인물 관우(關羽)를 신격화한 존재라는 것도 익히들 알고 있을 것이다. 정사『삼국지』나 소설『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에서 잘 알려진 촉한(蜀漢)의 건국자 유비(劉備)를 보필한 충의의 장군 관



사진 2

우는 죽은 후에도 민간에서 높은 인기를 자랑했다. 후대에 관우는 무신 혹은 그의 고향인 산서지방 상인들의 재신(財神)으로 모셔져 역대 왕조로부터 신의 호칭을 받았으며, 오늘날까지도 관우에 대한 신앙은 매우 융성하다.

관우와 거의 같은 시기, 남방의 교주(交州, 현재의 베트남 북부)에서 활약하였던 사섭(士燮)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삼국지』 오지(吳志)에 의하면, 사섭은 후한 말기부터 오나라에 이르는 40여년 동안, 교지(交趾, 현재의 베트남 북부)의 태수로서 반독립 정권을 세워 오나라의 손권으로부터 용편후(龍編侯)로 봉해졌다. 젊은 시절 그는 후한의 수도인 낙양에서 학문 수양에 힘썼으며 그 후 교지로 부임했다. 인품이 온화하고 겸허하였으며 현지 사람들에게 숭모를 받았다. 그가 죽은 후 베트남에서는 문자와 학문을 전수해 문명을 전파시킨 “남교학조(南交學祖)”로서 그를 모셨다.

사섭의 무덤은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의 동쪽 박닝(Bác Ninh) 성 투언타잉(Thuận Thành) 현에 남아있다. 이곳은 그가 근거지로 삼았던 교지군의 군치(郡治)인 용편(龍編)으로서 “남교학조”의 편액과 함께 사섭의 상이 잘 모셔지고 있다. 베트남 북부는 사섭이 죽은 후에도 오랜 기간 동안 중국 역대왕조의 통치하에 있었지만, “반란”이라고 기록된 독립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기도 하였다. 생전에 중국측의 지배자로서 군림하였던 사섭은 그 후 베트남 사람과 그들 땅의 수호신으로서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신들은 자신을 신봉하는 이들을 통해 경계를 넘는다. 물론 이는 공간적인 의미만이 아니다. 무신이 재신이 되는 신격의 변용 등도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신이나 부처에게 무언가를 기원할 때, 자신의 소원만을 빌지 말고 신들이 넘어온 기나긴 월경(越境)의 여정을 떠올려보면 어떨까. 분명 큰 즐거움을 가져다 줄 것이다.

사진 1 : 교토 센뉴지 · 칠복신 순례 때 장식 조릿대. 작년에 쓰던 조릿대를 절에 봉납하고 새 것을 받아온다.

사진 2 : 사섭의 상은 “남교학조”의 편액과 함께 모셔져 있다.

사진 3 : 요코하마 차이나타운에 있는 관제묘는 이곳의 상징적 존재이다.



사진 3

## ❖ 강연회

제32회 창생부회 : 2011년 7월 1일

- \* 저우 웨이홍 (周維宏) (북경 일본학 연구센터 교수/중국 일본사학회 부회장)  
「일본인의 아시아관의 변천 및 외교에 미친 영향」

COE 객원교수 강연회 : 2011년 7월 22일

- \* 마 민 (馬敏) (간사이대학 COE 객원 교수/화중사범대학장)  
「조기 중·영 문화교류사의 몇 가지 문제-옥스포드 침례회문헌을 중심으로」

## ❖ 출판물 소개

\* 荒武賢一朗 / 編

『近世史研究と現代社会』

(清文堂出版・2011년 4월・263頁)

\* 荒武賢一朗・渡辺尚志 / 編

『近世後期大名の領政機構—信濃国松代藩地域の研究Ⅲ』

(岩田書院・2011년 5월・297頁)

\* 吾妻重二・小田淑子 / 編

『東アジアの宗教と思想』

(丸善出版・2011년 9월・440頁)

\* 吾妻重二 / 編

『関西大学東西学術研究所国際共同研究シリーズ9 泊園記念会創立50周年記念論文集』

(関西大学出版部・2011년 10월・310頁)

## ❖ 인사이동

- \* 2011년 6월 1일부로, 마 민 (馬敏) 씨가 COE 객원 교수에게 부임, 2011년 7월 31일부로, 퇴임했다.
- \* 2011년 10월 15일부로, 거 자오광 (葛兆光) 씨가 COE 객원 교수에게 부임, 2011년 11월 14일부로, 퇴임했다.
- \* 2011년 6월 15일부로, 이와키 미카 (岩城美佳) 씨가 COE-JA를 퇴임했다.
- \* 2011년 8월 31일부로, 리우 징 (劉婧) 씨가 COE-JA를 퇴임했다.
- \* 2011년 9월 27일부로, 스 자 (司佳) 씨가 COE-PD를 퇴임했다.
- \* 2011년 10월 1일부로, 이시다 토모코 (石田智子) 씨가 COE-RA에, 라 탄 (羅丹) 씨가 COE-JA에 부임했다.
- \* 2011년 10월 11일부로, 웬 촌 (袁晨) 씨가 COE-JA에 부임했다.
- \* 2011년 10월 14일부로, 왕 샤오위 (王曉雨) 씨가 COE-RA에 부임했다.



글로벌COE

‘동아시아 문화교섭학 교육연구거점 (ICIS)’

## 기요 원고모집 안내

간사이대학 문화교섭학교육연구거점에서는 기요 『동아시아 문화교섭연구』(Journal of East Asia Cultural Interaction Studies)의 원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응모하신 원고는 편집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 (1) 원고
  - 동아시아 문화교섭에 관한 논고, 연구 노트, 기타
- (2) 사용언어 및 자수
  - 일본어 : 20,000자 정도
  - 중국어 : 20,000자 정도
  - 영어 : 4,000여 정도
- (3) 주의 사항
  - (a) 150자 정도의 영문요지를 첨부해 주십시오.
  - (b) 제출원고는 MS워드 작성하여 주십시오.
  - (c) 주석은 각주를 사용해 주십시오.
  - (d) 참고문헌은 참조 문헌 리스트없이 '각주'로 작성해 주십시오.
  - (e) 도표가 있을 경우에도 가능한 상기 자수 이내로 써 주십시오.
- (4) 투고하실 원고의 이차이용 (전자화 또는 일반공개)에 대해서는 원고게재시에 집필자가 본 거점에 허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5) 제출 마감일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편번호564-8680

日本國大阪府吹田市山手町3-3-35

關西大學文化交渉學教育研究據點

『東亞細亞文化交渉研究』編集委員會

TEL : 06-6368-0256

E-Mail : icis@jm.kansai-u.ac.jp

## 편집 후기

『Reflection』도 이것이 최종호이다. 문화교섭이라고 하는 주제 아래 추진해온 거점 연구활동도 금년도로 마무리된다. 다만 지금까지 쌓아 온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이루어낸 연구 성과, 그리고 사람들과의 만남과 같은 일들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시작이기도 하다. 문화교섭이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연구를 계속해 갈 것인지, 우리의 ‘지식’을 향후에도 계속 쌓아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2년간 뉴스레터 편집에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여러분의 도움에 힘입어 『Reflection』을 무사히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담당:이케다 토모에/池田 智恵)

## 표지사진에 대하여

쿠알라룸푸르는 신기한 도시였다. 내 연구와 관계가 있는 중국이나 홍콩, 대만의 도시에는 많이 가봤지만, 말레이시아의 도시에 간 것은 처음이었다. 이 도시는 낯은 것과 새로운 것이 공존하고 있어 정겨운 느낌이 감도는 반면 몹시 현대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다. 이곳의 사진을 찍어 누군가에게 보여주면 틀림없이 상하이나 방콕, 아니면 다른 도시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이곳에는 내가 가봤던 다른 아시아의 도시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이 있었는데, 바로 인도문화의 존재이다. 사진은 “힌두사스리·마하·마리아만”이라는 힌두 사원이다. 차이나타운으로부터 꽤 가까운 곳에, 붙속 튀어나온 휘황찬란한 조각의 탑이 눈길을 끈다. 주변에는 인도계 사람들이 참배를 하려고 구두를 벗는 모습이 보인다. 거기서 2, 3분 거리에 관제묘가 있다. 관제묘 안에는 중국계의 사람들이 한 손에 찻잔을 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마도 관제묘에 가는 사람들은 힌두 사원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힌두 사원에 가는 사람은 또한 관제묘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한 도시에 여러 문화가 중층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광경이었다. 오직 여행객들만이 관제묘와 사원 사이를 자유로이 넘나드는 것이다.

쿠알라룸푸르의 인구는 말레이계, 인도계, 중화계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그들은 곁에 존재하는 이문화 속에서 날마다 무엇인가를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런 그들이 마음에 그리는 사회란 어떤 모습일까? 그런 것을 생각하게 하는 여행이었다.



[촬영 : 이케다 토모에 (池田 智恵)]



# Reflection 9

ICIS Newsletter, Kansai University

발행날 : 2012년 1월 31일

발행 : 關西大學文化交渉學教育研究據點

日本國 大阪府 吹田市 山手町 3-3-35

우편번호 564-8680 / TEL + 81-6-66398-0256

E-Mail [icis@mlkandai.jp](mailto:icis@mlkandai.jp) ~ URL <http://www.icis.kansai-u.ac.jp/>

關西大學文化交渉學教育研究據點

# ICIS

